

가정의 달  
선교주일

꿈이 있는 교회  
성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사랑기야 사랑방에서 와서... 붙어서 살아나가게 하라” 에스겔 37:9

새로운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채

성 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 예 배 WORSHIP

May 30, 11:30 a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사역과 행사 안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김성배 목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요엘 2:21-27
	<b>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인생</b>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 찬송 95장 - 나의 기쁨 나의 생명이 되시며 (통일찬송 82장)
헌신과 나눔	봉 헌 / 홍현근 집사, 최선운 집사
	*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삶과 세상으로	* 보냄의 찬양 / 가서 제자 삼으라
	* 축 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 금 요 찬 양 예 배

합심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갈라디아서 6:1-10

두 종류의 인생 II

#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역 / 행사

6월은 “재점검의 달” 2021년 후반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풍성히 누리도록 말씀과 기도생활을 새롭게 합니다.

- 2021년 표어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  
주제 말씀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붙어서 살아나게 하라”(에스겔 37:9)
- 선교주일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 전도자,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 지난 주일 Trinity 신학교의 Park 에서 자녀들과 함께 했던 피크닉을 위해 모두 수고해 주셨습니다.
- 주일예배 예배를 CDC 와 주정부의 지침을 준수하면서 zoom 과 CUMC 에서 동시에 진행합니다. 은혜롭고 안전한 예배가 되도록 기도와 지혜를 모읍시다.
- 2세 신앙교육 E-Learning의 환경 속에 있는 자녀들의 학업과 신앙 교육을 위해 기도합니다.
- 성경 읽기 교회 웹사이트에 매주 성경읽기/문제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섬김이: 장경미 사모, 성경공부 / 박진성 집사, 웹사이트) 말씀 공부에 힘 더욱 씁시다.
- 기도 토요일 새벽 기도(오전 7 시)에 참여합니다.
- 치유, 회복, 나눔의 사역을 은혜롭게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 5월의 사역 - 선교주일(30)

♥ 6월 생일축하 ♥ 김영준(8) 홍은솔(9) 오승국(15) 이정연(24)

예배와 양육,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으로  
세상과 이웃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건강하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 기도제목

-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 주중 성경연구(화 & 목 / 이사야서)의 발전을 위해

### 예배섬김이

주일예배기도	5/23	5/30	6/6	6/13
	최선운집사	최내권집사	구민집사	박진성집사
주일헌금위원	5/23	5/30	6/6	6/13
	홍현근집사/최선운집사		김훈태집사/유동숙집사	
주일안내위원	5월		6월	
	구민집사		김훈태집사	

## 말씀노트

###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전화위복의 축복 / 요엘 1:1-14**

팔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의 네 개의 이름으로 묘사된 심각한 자연재난은 곡식은 물론 수목까지 황폐하게 했다. 생존을 위한 식량과 식수를 구할 수조차 없는 그 상황에서 올바른 원인을 찾아야 했다. 그러나 그릇된 원인 분석은 잘못된 결과만 낳을 뿐이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원인을 중국에게 돌림으로써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를 부치기는 것과 같다. 이에 요엘 선지자는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회를 촉구했다. 진정한 예배와 하나님과의 참된 사귀이 요청되었다. 우상숭배와 불의 등의 죄를 범하면 응당 징계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정벌을 회피하고 싶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침묵은 더 무섭다. 하나님이 벌조차 주지 않으시면 그것이 최악이다. 이는 마지막 날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이기 때문이다. 징계나 벌을 받지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이는 우리에게 불화위복의 축복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를 끊임없이 주신다. 전화위복의 복을 놓치지 말고 선용해야 한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인생 / 요엘 2:21-27**

하나님은 궁핍을 풍요로 바꾸십니다.

채무자가 아닌 하나님의 보상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회복

기복신앙이 아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자.

최상의 축복,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을 시모하자.

###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인생 / 요엘 2:21-27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재앙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이들에게 두 가지, 참 회개와 성회 개최를 요청했다. 순종할 때, 메뚜기 재앙은 더 이상 멸망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새로운 시작의 전화위복의 복이 된다. 물질과 영적으로 온전한 축복이 회복되는 것이다.

우선 물질적 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는 어떤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가?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됐다. 우상숭배와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곡식과 과일, 기름과 포도주가 가득하게 된다. 완전한 회복, 넘치는 회복을 누리게 된다.

메뚜기 재앙으로 온 땅이 황폐해져 기근과 굶주림이 심각했던 심지어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마저 드릴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21절은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 하라고 외친다. 그럼으로 황폐해진 땅이 다시 비옥한 농지가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면, 땅도 함께 회복된다. 농경 시대의 풍요와 평안의 상징, 파종기의 이른 비와 결실을 돕는 늦은 비로 온 땅이 다시 생명력이 넘친다. 26절은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모든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때문이다. 채무 의무가 아닌, 전적 하나님의 은혜이다. 회복과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백성에게 조건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만드시고, 물질적인 복을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역경을 잘 버텨서,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하자. 받은 복이 아닌,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자. 물질이 아닌 복을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자.

또한 순서를 분명히 하자. 물질의 풍요와 성공의 기도 응답만을 바라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는 것이 최우선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 물질적인 복과 상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해야 한다. 이 마음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물신 숭배의 세상과 다를 바 없다. 넘치는 복도 천국에서 누릴 복의 그림자에 불과함을 깨달아 천국을 더욱 사모해야 한다.

3천 3백만이 감염되고 60만이 생명을 잃은 미국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서야 한다. 이는 다양한 방식의 피해를 입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 요엘 시대에 발생한 메뚜기 재앙을 교훈 삼아, 자신을 성찰하며 마음을 찢고 회개하자.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궁핍함을 풍요함으로 바꾸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찬양하며 천국을 향해 전진할 때이다.

## 말씀 적용과 실천 노트

*Application Note*

## 삶과 신앙

###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 판단의 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도 판단하려 든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 의외로 교회와 관련된 상처가 많고, 그로 인해 판단의 영에 붙들리는 경우도 많음을 보았다.

2004년 여름, 몽골에 온 한국 단기선교팀 중에 나를 기도와 물질로 섬기고 후원하는 한 권사님이 있었다. 당시 허리가 안 좋았는데, 내게 기도를 받으면 나를 거라는 확신이 있어 무리해서 단기선교를 왔다고 했다. 권사님과 허리를 놓고 기도하는데 앞이 캄캄하고 빛이 보이지 않는 느낌이었다. 나중에 다시 따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권사님에게 주셨다.

알고 보니 권사님이 출석하는 교회의 당회가 목회자를 내보내려는 문제로 분열이 되었고, 그 와중에 정치적 문제가 개입되어 몽골 단기선교팀 후원이 중단되는 사태가 생겼다. 그러면서 권사님이 담당 장로님들과 많은 논쟁을 했고, 그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 판단이 권사님 마음에 가득했다. 나는 권사님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 안에 있는 판단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장로님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권사님을 위해서입니다. 판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는 영혼들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질병도 낫지 않을 것입니다.”

권사님이 많이 울었다.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니까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쉽지는 않고, 내려놓기 싫은 마음과 싸우는 과정이 기도 가운데 계속되었다. 권사님과 기도하면서 판단하는 마음의 뿌리가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깊게 박혀있는지를 보았다.

이후에도 대부분 아픔의 뿌리에 같은 교우에게서 받은 상처와 판단과 원망의 마음이 있었다. **판단하는 마음이 있으면 영적으로 순결할 수도, 건강할 수도 없다. 판단의 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도 판단하려 든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문곤 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하나님은 과연 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옳은 분인지 그른 분인지, 신뢰할 만한 분인지 아닌지를 우리 잣대로 판단하려 한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 순종했다. 당시 사람을 죽여 제사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방 종교의 풍속이었다. 인신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거나 그분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오직 순종했다.

우리는 때로 자신도 판단하며, 괴로워한다. **나를 판단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평온을 되찾을 수 있다.** 그리고 상대를 판단하는 마음도 쉽게 내려놓을 수



##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http://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